

동남권 골재수급 및 시장 동향 분석

Analysis of the Trends of Supply and Demand of Aggregate in the Southeastern Region of South Korea

최 세 진*
Choi, Se-Jin

김 영 옥**
Kim, Young-Uk

김 도 빈**
Kim, Do-Bin

Abstract

Recently, the supply and demand of aggregate in the Southeast region has been disrupted because supply of sea sand decreased due to discontinuation of collecting the EEZ aggregate in the southern sea. This study analyzed the Trends of Supply and Demand of Aggregate in the Southeastern Region of South Korea in order to find a solution these social problem.

키 워 드 : 동남권, 골재수급, 바다모래, EEZ

keywords : southeastern region, aggregate supply and demand, sea sand, exclusive economic zone

1. 서 론

국내 골재 공급시장은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하천모래의 공급이 매우 풍부하였으나 200만호 주택건설과 같은 대형 건설사업이 지속됨에 따라 양질의 하천골재 자원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인천 옹진군에서는 1984년부터 바다모래를 채취하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 골재파동 이후 골재수급 안정종합대책에 따라 2008년부터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를 지정, 운영중이다. 최근 바다모래 채취의 대형화, 심굴화로 인한 환경생태계 파괴로 바다모래 채취금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특히 남해 EEZ골재 채취단지 채취중단(2017년 1월)으로 인한 바다모래 공급 감소로 동남권 지역의 골재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본 연구는 동남권 지역의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동남권 지역에서의 골재수급 현황 및 시장동향을 분석하였다.

2. 동남권 골재 시장동향 조사 및 분석

2.1 바다모래 채취 현황

그림 1은 남해 EEZ 모래채취 계획량을 나타낸 것으로 남해 EEZ골재는 2008년 최초 지정된 이래 채취계획량은 계속해서 증가 하였으며 누적 채취량은 2017년 2월 기준 6,200만³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 공급되는 골재 중 바다모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적으로 2008년 25.6%에서 2016년 40.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7년도의 경우 바다모래 공급비율이 약 25.1%로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최근 남해 EEZ골재 채취중단 등에 의하여 2018년도 바다모래 공급계획량은 8.6%로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¹⁾. 특히 남해 EEZ 바다모래 채취 불허 시 골재수급 불안정으로 모래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연쇄적인 건설비용의 상승을 야기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남해 EEZ 모래 채취 계획량

2.2 동남권 지역의 골재수급 현황

그림 2²⁾는 남해 EEZ 지역별 골재 공급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남해 EEZ모래의 경우 동남권(부산·울산·경남)지역이 2016년 88% 및 2017년 82.5%를 차지하고 있어 동남권에서의 EEZ 모래 의존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골재의 개발가능량은 약 60억³으로 조사되어

* 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공학박사, 교신저자(csj2378@wku.ac.kr)

** 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골재 품종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 산림골재 자원조사 부존량 현황을 나타낸 그림 3³⁾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남권의 경우 개발가능량이 4천8백m³으로 전체 개발가능량 중 약 8%로 타 지역에 비해 개발가능량이 적게 나타나 산림골재의 안정적인 채취 및 공급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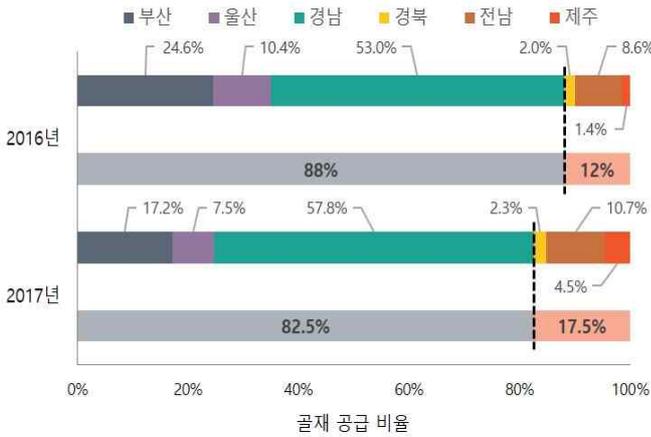


그림 2. 남해 EEZ 지역별 골재 공급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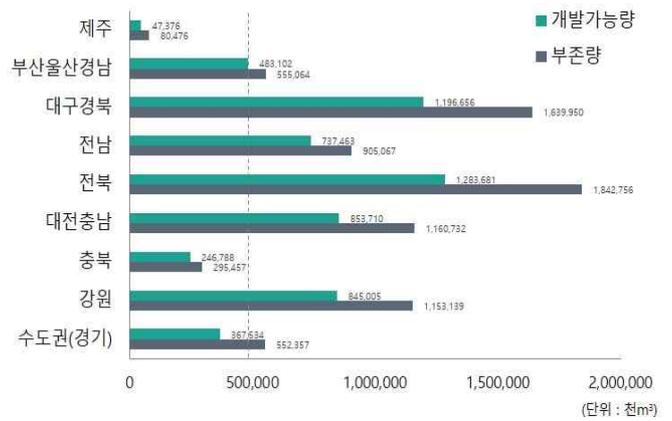


그림 3. 지역별 산림골재 자원조사 현황

2.3 동남권 지역의 골재시장 예측

2017년도 지역별 골재수요 비중은 건설투자의 지역별 비중, 레미콘 출하비중, 골재 공급실적 및 레미콘 의존도 등을 종합하여 추정²⁾할 경우 서울·경기·인천 30.5%, 대전·충남·세종 11.8%, 광주·전남 9.4%, 대구·경북 10.3%, 부산·울산·경남 20.5%로 조사되었다. 또한 2018년 지역별 모래 수요량을 추정²⁾할 경우 수도권 34.9%, 동남권 16.9%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2019년 이후의 지역별 골재 수요 전망은 LG경제연구원³⁾의 중기 전망(연평균 2.3% 증가) 기준으로 수도권의 경우 36~38%로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동남권의 경우 16.5~16.7%로 미미하게나마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3. 결 론

최근 남해 EEZ골재 채취단지 채취중단(2017년 1월)으로 인한 바다모래 공급 감소로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골재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본 연구는 동남권 지역의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동남권 지역에서의 골재수급 현황 및 시장동향을 분석한 것으로 결론은 다음과 같다.

- 1) 동남권 지역에서의 EEZ 모래 의존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림골재 부존량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개발가능량이 적게 나타나 원활한 골재수급을 위해서는 산림골재의 안정적인 채취 및 타 지역에서의 공급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남해 바다모래 EEZ 채취 불허에 따른 골재 공급량 대폭 하락으로 골재수급 불안정이 예상되며 안정적인 수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생태계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골재 재취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cknowledgement

본 논문은 2017년 국토교통부의 재원으로 수행된 “동남권 골재수급 정상화를 위한 골재원 다변화 방안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결과임을 밝히며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고 문 헌

1. 대한건설협회, 2018년 건설경기 및 건설자재 전망, 2018
2. 국토부, SOC 등 건설공사용 골재원 다변화 방안, 2017.11
3.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골재의 수급안정 및 품질향상 방안 연구, 2010